

# ‘표현자의 감각’으로 마주한 동양적 울림

《김윤식 문학기행》 펴낸 김윤식 교수

문학사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교수가 문학기행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수감각의 부름에 온몸을 내맡기기 위해서였다. 자료더미와 작품의 늪에서 벗어나 길을 떠날 때, 그의 발길을 붙든 것은 내면에서 들리는 울림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헛것이였음이 드러난다. 그의 문학기행은 울림에서 헛것으로, 헛것에서 울림으로 순환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김윤식 교수



문학사상사/A5변형/252면/8000원

‘길떠나기’는 개인의 내면에서 울리는 어떤 부름에 응답하는 한 형식이다. 김윤식 교수(65, 서울대 국문과)에게 길떠나기는 ‘순수감각의 부름’에 화답하기였다. 문학사가와 문학평론가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아올린 그가 문학과 예술의 현장을 찾아 떠난 것은,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서, ‘연구자의 논리’(근대문학 연구)와 ‘표현자의 사상’(현장비평)에서 벗어나 ‘표현자의 감각’(문학·예술기행)에 몸을 맡기는 일이었다.

## 표현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떠돌이의 기록

문학과 예술의 현장에서 연마한 그의 ‘표현자의 감각’은 이미 《문학과 미술 사이》(일지사), 《풍경과 계시》(동아출판사),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술) 등으로 묶였고, 최근에는 《김윤식 문학기행》(문학사상사)으로 감각의 밀도를 더했다. “표현자의 반열에 가까이 가서 서 보는 일”이 그가 기행문을 쓰는 이유다.

그의 이번 여정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시작한다. 그를 울란바토르로 이끈 것은 지명에서 뽑어져 나오는 기이한 시적 ‘울림’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울란바토르가 선연한 울림으로 다가선 것은 밤하늘의 별떨기였다. 한밤중 겐(몽골식 집)에서 깨어 밖에 나서자 문득 하늘에 빛다발의 회오리가 빛나고 있었다.

“그 장면에 숨이 멎어버릴 듯했어요. 그것은 반 고호가 그린 <별 많은 밤>에서 표현한 목시론적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빛이었습니다. 결국 ‘헛

것’이었던 셈이죠.”

그의 두번째 여행지는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 그는 산소통을 옆에 끼고 카트만두를 거쳐 버스로 3일을 밤낮으로 뚫아, 해발 5천미터 고지를 두 번씩이나 넘어 천신만고 끝에 라사에 이르렀다. 여정의 어려움만큼이나 감동은 컸지만, 그는 이를 언어로 표현할 길이 막막했다.

“카트만두에서 귀국해 그때의 감격을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원고를 붙잡지 못했죠. 결국 카트만두 구왕궁 거리의 한 가게에서 구한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소설 《이조잔영(李朝殘影)》을 실마리 삼아 겨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 이역에서 만난 오리엔탈리즘의 그림자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여정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해간 대목은 이 기행문의 백미다. “대체 이 책이 어째서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을까”로 운을 뗀 그는 가지야마의 눈을 빌어 자신의 여정을 추체험한다. 이 ‘귀환불능자’의 유품 속에서 그는 피해자인 조선 여성과 가해자인 일본 남성의 관계를 천착해 오리엔탈리즘의 일본식 판본의 한 전형을 발견해낸다.

김교수는 이어 공자의 고향 곡부를 찾아 떠나고 공자가 가던 길을 따라 태산에 오른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와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 《공자》를 빌어 공자의 삶을 재해석한다.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공자의 ‘지천명’ 사상이었

다. 이는 14년 동안 엽관운동을 펼쳤던 공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운명을 수용한 것을 말한다.

몽골과 티벳, 그리고 태산을 떠돌던 김교수의 발걸음은 북간도를 거쳐 일본의 고마바에서 멈춘다. 북간도에서 강경애·안수길·윤동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그는 윤동주에 가려진 청년문사 송몽규를 찾아내고, 고마바에서는 야나기 무네요시와 번역문학가 김소운의 의식세계에 깔린 오리엔탈리즘의 잔영을 섬세하게 포착해나간다.

“조선인은 야만인이지만 조선의 예술은 훌륭하다는 야나기의 예술론이나, 일본인의 감성에 맞는 조선시만 번역한 김소운에게는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짙어요. 그들은 조선의 예술이나 문학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멋대로 헛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머나먼 울림’을 찾아 떠난 김교수의 여행은 ‘선연한 헛것’으로 마무리한다. 그것은 어쩌면 여행객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내면의 울림에 매혹돼 떠나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아프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일상에 비 끌어매는 힘이자 또 다른 울림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게 하는 동력이다. 김교수가 또 다른 울림에 귀를 열어두고 여행가방을 챙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박천홍 기자